

인류의 적,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 사용의 80%를 차지하는 본드·흡입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사범이 '89년 2,032명에서 '95년 6,277명으로, 불과 4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발견되지 않은, 환각물질 사용자와 기타 다른 마약류 사용자 등을 감안한다면 마약류 상습 사용자의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이런 통계수치를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들어 마약류와 관련한 여러가지 보도가 과

거에 비해 빈번해진 것을 보면, 마약이라는 것이 좋든 싫든 우리생활과 얼마나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더구나 환각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본드·부탄가스·신경안정제 등도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니, 마약류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

일찍이 이 마약 때문에 나라를 망친 예를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태국을 비롯

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는 현재 이 마약 때문에 국가적 황폐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 일부 특정계층에서만 사용되었던 마약·약물 등이 이제는 건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원·농민·어민·가정주부, 심지어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회·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국 4만여 약사들이 마약퇴치 관련 단체를 설립키로 결의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



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 민관식)다.

1992년 4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과 중독자의 치료, 재활사업을 통해 마약류 남용의 폐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수호하고 마약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동안,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대행진(1만 2천명 참가),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교육(전국 87만명 대상), 가두캠페인, 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고 각종 교육·홍보용 자료를 제작·배부하는 등 마약류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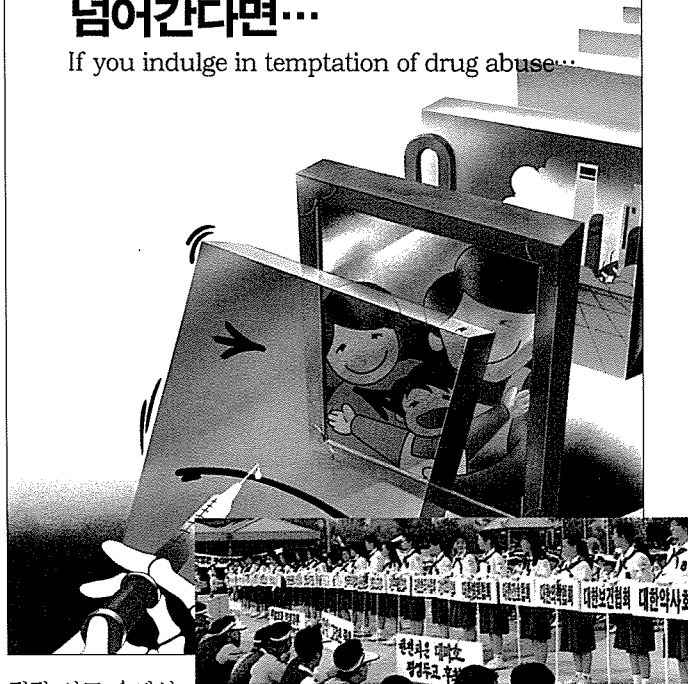
운동본부는 또 전국에 15개 지부와 함께 지역 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마약류로 고민하는 본인·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운동본부가 특히 관심을 갖는 대상은 청소년계층이다. 청소년기는 일생에 있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중요한 성장시기인데, 이때 자제력을 잃고 순간적인 도피수단으로 환각제를 사용하고, 환각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음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 모두에 큰 피해가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선하게, 어려운 상황을 금

지금 당신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If you indulge in temptation of drug abuse...



정적 사고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마약류·약물·환각제 등의 사용도 마찬가지다. 순간적 쾌락이나 망각을 선택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사람



들의 이런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Z]

상담을 환영합니다

마약류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가 있을 경우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센터

서울	080-022-5115	춘천	0361-56-6115
부산	080-522-5115	강릉	0391-645-6115
인천	080-031-5115	원주	0371-763-5115
전주	0652-75-5115		

- ARS(자동음성정보서비스) (02) 598-5115
- PC통신 : 천리안 GO KDRUG, 나우누리 GO DRUG